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동일 한강 이야기

목차

I

「통일 항아리」란 무엇인가요?

1. 옛날 우리 부엌에는 큰일에 대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_6
2. 「통일 항아리」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정입니다._8
3. 「통일 항아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_10

II

왜 지금 「통일 준비」를 해야 하나요?

1.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_14
2. 바로 지금이 「통일 준비」에 나설 때입니다._18
3.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_20

III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통일정책에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_26
2.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한 5대 과제의 실천에 나섰습니다._28
3. 「통일 항아리」는 「통일 준비」의 핵심입니다._32

IV

「통일 항아리」는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인가요?

1.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_36
2. 통일 비용을 어떻게 모을 계획인가요?_37
3. 「통일 항아리」에 모이는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_38
4. 평범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참여하였습니다._40
5. 「통일 항아리」,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_42

V 대학생 상생 기자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통일 준비」보다 교류협력을 먼저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요? **_50**
2. 왜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인가요? **_51**
3. 통일준비사업 중 통일재원 적립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52**
4.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에 앞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_53**
5. 남북협력기금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54**
6. 성금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_55**
7. 통일 재원을 적립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통일 준비」 방법이 아닐까요? **_56**
8. 「통일 항아리」의 현행법상 근거는 무엇이고, 모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_57**
9. 「통일 생각」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_58**
10. 「통일 생각(www.unihope.kr)」에 기부하면 「통일 계정」으로 들어가나요? **_59**



경화통액

경화통액

경화

경화통액

경화통액

I

「통일 항아리」란 무엇인가요?



옛날 우리 부엌에는 큰일에 대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부엌 한켠에는 항상 큼지막한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면 쌀을 한줌 집어서 항아리에 집어넣었고, 귀한 물건이나 돈이 생겨도 조금씩 항아리에 남겨 두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나중에 집안에 큰일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부엌에 항아리를 하나씩 두고 소중한 것을 조금씩 아껴 모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큰일을 치르며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던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되고, 오래 가는 도구 「향아리」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이나 창, 도끼 등 단단하게 쇠로 만든 물건들도 몇 백 년이 지나고, 몇 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삭아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튼튼하고 질 좋은 나무로 만들어 한때 영화를 뽐냈을 궁궐들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흔적만을 남기게 되고, 돌에 새겨진 비문들 역시 오랜 풍파에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이 흔적만을 남겨 놓게 됩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어서 구운 이 향아리는 땅 속에 있든 바다 속에 있든 몇 천 년의 세월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취로 삶을 영위하던 시절부터 과일이나 곡식 등 귀중한 것을 담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향아리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그 뚜렷한 흔적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통일 항아리」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2012년 8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종전 「남북협력기금법」 상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계정」과 「통일 계정」으로 분리하고 법률 이름은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통일 계정」에 「통일 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향아리에 소중한 것을 담아 보관하며 장차 닥칠 큰일에 대비하던 옛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지혜를 빌어 온 것입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통일향아리를 형상화하여 통일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조선 시대 왕실 자기를 만들던 사옹원(司饗院) 사기장(沙器匠)의 명맥을 7대째 이어 오고 있는 백산 김정옥 선생과 함께 「통일 향아리」 실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백산 김정옥 선생은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기능 보유자로서 50년 넘게 한길로 전통 도예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도예 명장입니다.

「통일 향아리」 제작은 지난 5월 12일 영남요(嶺南窯)에서 시작 되어 형태 만들기 및 유약 바르기, 글씨 쓰기에 이어 재벌구이를 거친 끝에 6월 23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김정옥 선생은 「통일 향아리」를 만들게 된 것이 54년의 도자 인생 가운데 가장 뜻 깊은 일이었다며 깊은 감회를 피력했습니다.



통일향아리 완성('12.6.23, 문경)

「통일 항아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통일 항아리」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정성

「통일 항아리」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 재원을 적립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항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성을 담은 상징입니다.

통일 항아리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채워지면 통일과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북한동포들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통일 기금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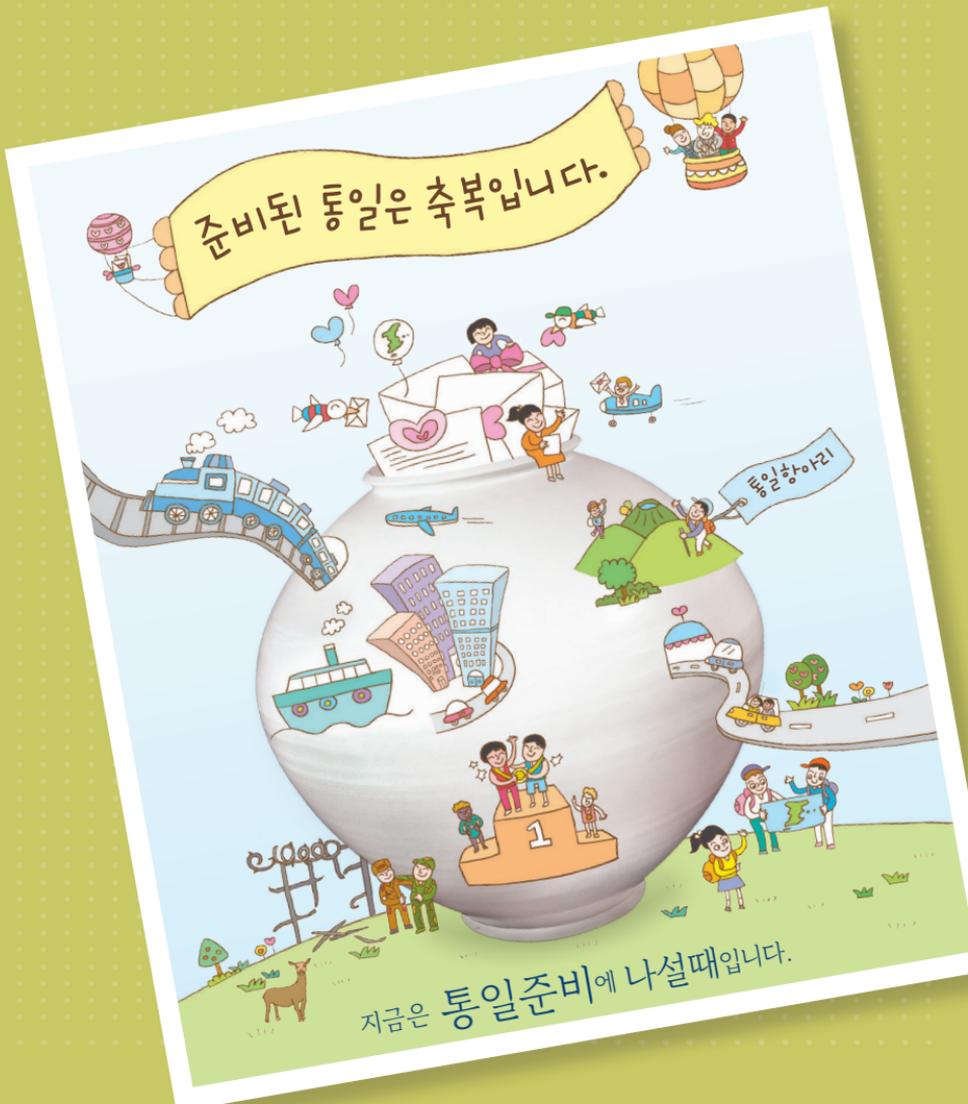
한편, ‘도자기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남 고성의 대흥초등학교 학생들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140점의 「통일 향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12.7.28~8.5 경남 거창에서 개최된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도자기를 판매하여 통일 기금을 모으기로 하였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140점 전체가 판매되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통일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통일 향아리」

II

왜 지금 「통일 준비」를
해야 하나요?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학과 학생들과의 대화('12.1.4)

많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4 가량은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채워진 족쇄

이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우리가 타파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단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단에 익숙해져서, 분단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채워진 '족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지식인들 중에도 조국의 독립에 회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제에 굴복한 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군 자원 입대를 독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광복은 도래했고 역사의 흐름을 부정한 지식인들이 역사에 친일파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일제시대 지식인들이 보인 타협적 행태가 이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약한 지식인으로서 작은 편안함에 안주하여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도전을 해야 청춘이에요. 여러분이 통일 세대의 주역입니다.

(류우익 장관 강원대 특강, '12.6.13)

「통일 준비」는 통일을 앞당길 것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많은 조선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의 기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까지도 많은 독일인들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 초까지도 많은 독일인들은 20세기 내에 통일이 될지에 대해서 조차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몇 개월 후 동독이 소멸하고, 통일 독일이 수립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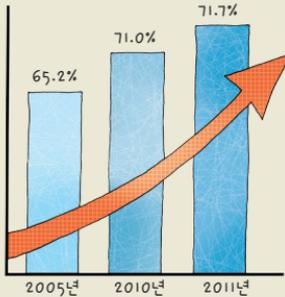
통일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미래는 더욱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통일은 돈이 든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되는 길

통일을 회피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회의하는 많은 이들은 통일이 된 훗날 본인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채워진 ‘족쇄’와 같습니다. 돈이 든다고 해서 물러서서도, 어렵다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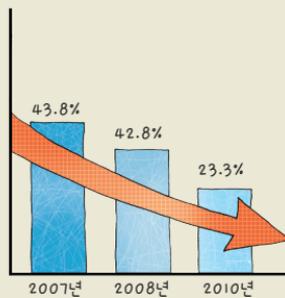
통일 인식 여론조사

- KBS, 국민 통일 의식 조사(통일의 필요성)
 - '05.5.30~6.30 : 전국 20대 이상 60대 이하 남녀(1,219명)
 - '10.8.2~8.3 :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1,007명)
 - '11.7.19~7.20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1,028명)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점차 개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가치관 조사(통일의 필요성)
 - '10.10~11월 : 전국 16개 시도 중고등학교 학생(2,268명)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바로 지금이 「통일 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변화의 시기, 한반도는 변화의 중심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중동·북아프리카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유럽과 같이 장기간 안정과 번영을 희구하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금융 위기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판이 흔들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판이 흔들리며 질서가 바뀌는 상황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질서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한반도는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 통일의 가능성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통일 역시 그 가능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더 이상 통일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통일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위축되거나 외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상황을 직시하고 변화에 나서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이들의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통일은 조속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통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통일준비 대토론회('12.5.3)

지난 6월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2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6개국에 불과합니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인구 8천만의 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50 클럽」을 넘어 「30-80 클럽」에 이르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경제 중심지 중국과의 인접성, 남한의 고급 인력, 북한의 천연자원 등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합되면 2050년경 경제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

독일의 예는 이러한 꿈이 단순히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통일 22주년을 맞은 독일은 수많은 우려를 불식하고 번영을 구가하며 명실상부한 유럽의 지도적 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일 직후 약간의 혼란도 뒤따랐지만 통일은 독일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도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원,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되는 것만으로 폭발적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당당한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발산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분단 상황에서의 평화는 잠정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제복을 입은 우리 군인들과 우리 영토의 민간인들이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통일을 통해 서만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은 진정한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과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만나는 땅입니다. 따라서 대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문명을 발전시키기에 이상적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은 섬에 불과합니다.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삶의 방식을 분단으로 상실한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영위한 삶과 민족의 꿈을 되살려야 합니다.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길을 열어서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삶을 복원해야 합니다. 대양과 대륙의 중심에서 새로운 세계 문명의 발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통일 비용 < 분단 비용

일부에서는 통일 비용을 이유로 통일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분단 비용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분단은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등 「분단 이재민」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진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느라 정치·경제·외교·군사력을 소진하는 것도 분단 상황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남남 갈등 등 우리 문화와 국민들의 심리에도 분단의 흔적은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 < 통일 혜택

더 나아가 통일 비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통일 비용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는 비용이지만 통일 혜택은 통일 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편익인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클 것이며 통일은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한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입니다. 여러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온 국민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국가민족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모두 통일한국을 꿈꿉시다. 그리고 통일 향아리를 채워갑시다.

(류우익 장관 트위터 '12.6.29)



정리위원장
대표이사 박상진

상임회계책임사
대표 김의현



III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일정책 최고위과정('12.3.2)



통일정책에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 관리」와 「통일 준비」가 그 두 흐름입니다.

「분단상황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상생 공영과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통일 준비」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앞당기고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분단상황 관리」

해방에 뒤 이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으로 남북 관계는 오랜 시간 긴장과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치열한 체제 경쟁과 지속적인 무력 충돌이 이어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본격화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분단상황 관리」를 기반으로 「통일 준비」로

그러나 「분단상황 관리」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로서 이러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 관리」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통일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분단 상황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통일을 위해 나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 준비된 통일은 축복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인 폰 바이체커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드시 올 통일의 그날에 대비하여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한 5대 과제의 실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5가지 과제를 실천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 의지를 새롭게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중국·미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의 주체인 우리의 의지입니다. 독일의 경우 주변국들의 반대를 설득해서 결국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 외국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이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또한 외국의 한 방송사는 “남북 모두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양측 모두 통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기본적으로 혼란만 야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더 선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통일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의지입니다.

둘째,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 과정이 적지 않은 비용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 사례였습니다. 통일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통일 재원 마련은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자발적인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해 재원 마련을 시작합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개정되면 정부의 종자돈이 보태질 것입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세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혼란이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 한국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통일을 회피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통일에 대한 준비, 특히 통일 재원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축복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일 외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12.5.8)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유엔 등 주변국들 및 국제사회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 한국이 결코 그들의 국익에 해롭지 않으며, 통일 한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삶을 가꾸어 온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가 이러한 통일 비전을 웅변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통일의 '작은 열쇠'를 쥐고 있는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한반도 통일의 든든한 원군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넷째, 분단 이재민을 포용해야 합니다.

'분단 이재민'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가족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실향민 등 분단으로 인해 상처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돕는 것은 곧 통일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2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개 군(郡)의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이며 이웃이고, 법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 대한민국의 품으로 온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아무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는 본래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이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을 잘 보살피고 감싸 안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분단 이재민’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되면 정치·사회·교육·군사·치안·복지 등 모든 분야의 법과 제도가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직면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에 필요한 바람직한 법제도를 설계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원만한 통일과 효율적이고 갈등 없는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 성금 기탁(12.7.18)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명입니다. 2만 4천의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지 못하면 통일을 해서 2천 4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을 길이 없습니다.

(류우익 장관 인천경영포럼 강연, '12.7.26)

「통일 항아리」는 「통일 준비」의 핵심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5가지 노력이 모두 의미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통일 재원 마련, 즉 「통일 항아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통일 항아리」에 적립된 재원은 통합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수단

통일 초기에는 남북 간 이질적인 분야를 통합하고 경제 건설을 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 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미리 적립해둔 통일 기금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재원이 적립되어 있다면 비용 때문에 통일의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재원 투입으로 초기 통합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항아리」는 이때 필요한 돈의 일부를 지금부터 모으자는 것입니다.

「통일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통일 자원 마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또한 통일 자원 마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통일 시점에서 상당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통일 당시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면서 비용을 적립해 나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때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마음을 모아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에 나섬으로써 미래 세대는 더욱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축복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자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12.7.2 국회개원 연설)

IV

「통일 항아리」는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성금 기탁('12.7.16)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통일 비용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사회 안정, 남북한 체제 통합, 경제적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일 비용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 남북한 소득 수준 격차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통일 비용 추계치도 연구자에 따라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500억달러에서 많게는 5조 달러)

통일 직후 1년간 최소 55조원 이상의 통일 비용 소요

통일부가 2010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20년 후에 통일이 될 경우, 통일 직후 1년간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55조원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20년 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일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어떻게 모을 계획인가요?

통일 비용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정부, 민간, 해외 등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통일 직후 1년간 필요한 최소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할 목적의 「통일 계정」(일명 「통일 항아리」)을 설치하고, 이 계정에 재원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정부 출연금과 남북협력 계정 미집행액, 자발적인 기부금

통일 계정은 정부 출연금, 남북협력 계정 미집행액의 일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등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주요 개정 내용

- 법률 제명 변경
 - 종전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
-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 「통일 계정」 설치
 -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계정」과 「통일 계정」으로 구분
 - * △남북협력 계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 계정 : 한반도 통합 지원
 - 통일 계정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 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근거 마련
 - 통일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근거 신설

「통일 향아리」에 모이는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통일 향아리」는 통일 및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사전에 모두 준비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 향아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통일 향아리」가 채워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커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가 확산될 것입니다.

자발적 성금으로 채워진 「통일 향아리」의 상징적 효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인 「통일 향아리」는 화폐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금 모으기 운동의 효과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모인 금보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통일향아리 뱃지

금 모으기와 IMF 극복

- 배경 :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당시, 민간에 잠재되어 있는 금을 모아 수출하자는 아이디어 제기
- 경과 : 국민들이 헌납 또는 판매 방식으로 금 제공, 1998년 1~4월간 351만명 참여, 227톤의 금 수집·수출(22억 달러, 당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의 20배 수준)
- 효과 : 금모으기를 통한 금액(22억 달러)은 당시 외채(304억 달러)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자발적인 나라사랑 운동을 통해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195억달러로 경제를 살리고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조기 청산

평범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참여하였습니다.



통일생각 후원의 밤에 참석한 대학생들('12.8.17)

「통일 향아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통일에 대한 정성이 「통일 향아리」를 채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일 기금을 모은 분들

• 김갑수 할아버지 등 고흥 군민

우리나라 땅끝마을 전남 고흥의 김갑수 할아버지는 2008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나라를 찾았으니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 라는 생각에 통일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가 9,000원을 입금한 통장을 개설한 후, 담배값·커피값·채소 판 돈을 통일 기금으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33명이 참여하였고, 2012년에는 350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고흥군은 「통일 기금 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범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진정군 할아버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경의선 복원이 결정된 2000년 8월 1일부터 1원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를 심어 보자는 의미에서 무궁화꽃이 새겨진 화폐 단위 1원으로 우리의 소원인 3,000리 남북을 하나로 이어보자는 취지에서 3000일간('00.8~'12.2) 매일 1원씩 추가하여 저축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하나은행 전국 614개 지점을 순회하면서 릴레이 예금을 한 돈을 통일 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 하나원 교육생

하나원 교육생 253명은 북한에서 가지고 온 돈, 제3국에서 모은 돈, 하나원 용돈 등을 모아 통일 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통일 항아리」 응원 엽서



「통일 준비」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통일 생각」)이 지난 6월 결성되어,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통일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일 생각」 홈페이지(www.unihope.kr / www.통일생각.kr)



유명인사 응원메세지



작가 이외수
"사랑 한 아름, 희망 한 모금!"



영화배우 신현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영화를 한 번 찍고 싶습니다.



개그맨 김준현
개그콘서트 북한 순회공연을 돌면서 북한 전통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개그맨 노홍철
통일이 되면 도전! 도전! 백두산 천지를 제 두발로 오르고 싶습니다.



야구선수 양준혁
북녘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고, 북한 땅에 양준혁 야구장을 짓고 싶습니다.



개그맨 김원효
통일 후 북한에서 결혼사업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개그맨 윤형빈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일 중 하나가 바로 백두산으로 신혼여행 가는 것입니다.



여성부장관 김금래

통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통일을 위해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가수 김태원

통일이 되면 육로를 통해 전 세계로 우리의 음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교수 서경덕

통일이 돼서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야하겠습니다.



가수 탁재훈

온 국민의 소원 통일이 된다면 할머니를 모시고 고향 개성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개그맨 김준호

북한의 코미디언들과 함께 개마고원 소극장을 만들어 함께 공연하고 싶습니다.



작가 김연옥

남북간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응원메세지

- 김*진 (ka****) 통일항아리가 가득차는 그날, 통일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화이팅!
- 김*혜 (go****) 통일항아리에 제 마음을 담기 위해 글을 남겨보아요.^^ 한가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는 아픔을 얼른 이겨내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 김*강 (kj****) 남과북. 한마음을 통일항아리에 담아.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자.
- 김*하 (pm****) 모든 국민이 마음모아 준비된 통일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그날을 꿈꾸며 통일항아리가 귀하게 쓰이길 기원합니다!
- 민*나 (pi****) 구수하고 정 깊은 항아리처럼 통일 항아리에도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기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될 때에 통일이 다가오는거겠죠?^^ 그 하나된 마음이 통일항아리에 가득 담기길..!!^^
- 박*준 (sa****) 통일항아리가 채워질수록 우리의 소원도 성장해갑니다. 오늘의 작은 정성이 함께 통일 항아리를 가득채워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환 (ps****) 하나의 마음이 커져 나가면 통일은 어느덧 와 있겠죠! 국토대장정에 임하는 통일항아리 핫팅!
- 서*이 (vh****)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숙원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중 하나가 될거예요. 분명... 그래서 더욱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항아리 힘내줘~~
- 유*숙 (yo****) 후손들에게 분단을 더이상 유산으로 남겨서는 안되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은*철 (ko****) 60년을 기다려 온 조국통일!! 통일만이 미래의 선진국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된 통일을 위해 핫팅!!
- 이*혁 (lg****) 통일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전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것 자체가 멋진 도전입니다. 통일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을 (yo****) 아무리 힘들더라도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는 분단의 아픔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세대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신 (dy****) 통일항아리가 가득 차서 통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 (ha****)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응원하고 있으니 통일 준비에 힘써주세요!^^
- 이*우 (bu****) 통일이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격을 위해 통일항아리가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갑시다.
- 이*지 (ch****) 통일이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 이*규 (hr****)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감싸안아주면 통일 멀지 않은 것 같아요.
- 임*라 (2l****) 분단된 지금, 언젠가 통일이 될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보물 항아리가 될 수 있기를!
- 임*경 (co****) 통일은 남한 국민의 의지없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인 통일을 위해 통일항아리를 응원합니다.
- 정*식 (dh****) 통일에 드는 비용은 투자입니다. 통일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 정*석 (je****) 국민의 작은 염원 하나 하나가 모여 비로서 하나의 커다란 통일항아리를 채운다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통일을 이룰날을 기다려 봅니다.
- 최*근 (ch****)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통일부 믿습니다!!
- 최*규 (si****) 통일항아리를 통해 평화적인 통일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하*일 (se****) 이마음도 통일항아리에 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 하*숙 (ip****)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조금씩만 모아둔다면 갑자기 통일이되어도 다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통일이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길^^ 화이팅



V

대학생 상생 기자단: “추가 질문 있습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 : 국내(제5기)·해외(제3기) 대학생 67명으로 구성



「통일 준비」보다 교류협력을
먼저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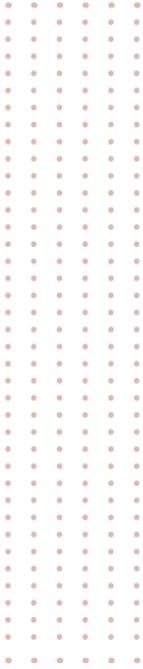


교류협력과 「통일 준비」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이 활성화해야 하고 「통일 준비」도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 준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정책으로서 교류 협력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북관계·정권·이념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 미래 대비 관점에서 「통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 준비」를 하지 말자는 것은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왜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인가요?



북한은 우리 정부의 「통일 준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합니다.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통일준비사업 중 통일재원 적립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 통일 의식 제고, △통일 재원 마련, △분단 이재민 포용, △통일 외교, △제도적 대비 5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 중 통일 재원 마련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동력인 동시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일 전후 일시적 대규모 재원 수요에 대비함으로써 통일 직후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부담을 통해 미래 통일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에 앞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통일 재원 적립을 비롯한 「통일 준비」에 대해 2010년부터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계·학계·시민 사회·경제계·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통일재원 적립 필요성 64.8% 찬성, 통일부 '12.6월 설문조사결과) 앞으로도 면담, 강연, 설명회 등을 통해 「통일 준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역 및 경험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 기금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 재원을 적립하려는 것으로서 장래 평화적 통일 상황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법적으로나 용도 면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통일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금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모금되고 있는 성금은 정부의 「통일 준비」 노력에 공감한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누구도 성금의 기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김갑수 할아버지, 나도균 씨, 진정군 씨 등 많은 분들이 스스로 통일 자원 마련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통일 향아리」 모금을 위한 군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본·미국 등 재외 한인 동포회 등에서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통일 향아리」는 돈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사업입니다. 일정 액수를 모으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 재원을 적립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통일 준비」 방법이 아닐까요?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 적립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 통일 비용 분담, △국민 통일 의지 결집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존재합니다.

또한 적립된 재원은 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운용을 통해 수익금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통일 항아리」의
현행법상 근거는 무엇이고,
모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통일 자원 적립을 위한 「통일 계정」 설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2.5.16 입법예고하고, '12.8.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12.8.29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 기금 모금은 「통일 생각」이라는 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된 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통일 계정」이 설치되면,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을 「통일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생각」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 「통일 준비」 차원에서 「통일 향아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사회 주요 인사 면담, 지역별 강연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통일 준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통일 준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을 발족하였으며, 이 단체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안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통일 생각(www.unihope.kr)」에 기부하면
「통일 계정」으로 들어가나요?



현재 모금된 성금은 정부가 각계에 「통일 준비」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인 것입니다. 향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 입법절차 완료 후 「통일계정」에 납부되도록 할 것이며, 「통일계정」이 마련되면 다른 민간단체나 개인들도 직접 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함양 이야기

인쇄일 2012년 9월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처 통일부 정책홍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5745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전화 070-7090-1177)